

# 美 대사관 직원 행세 7차례 검문 통과 외신기자 통역 광주진실 세계에 알려

## 5·18 이틀이 있어 광주는 외롭지 않다

### <2> 시민군 통역 인요한 박사

#### 학살 소식 듣고 무작정 광주행 “별집 된 도청·장례식장 된 도심 광주학살 후세에 똑바로 알려야”

1980년 5월25일 오후 푸른논의 대학생 인요한(56·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에겐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도심이 하나의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다가왔다. 전남도청 바로 앞 상무관은 시신과 유족들로 꽉 차 있었다. 확성기를 든 중년 여성은 “왜 내 아들이 우리 국민이 쓴 총에 맞아 죽어야 했나요?”라며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승국 건물은 짙은 불빛과 총장으로 상가들은 곳곳이 불타거나 훼손됐다. 도심 어디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곡소리를 뒤로 하고 나를 전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금남로를 지나자 별집으로 변한 전남도청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총탄으로 별집이 된 도청 안팎에는 총기를 휴대한 시민군들이 전두환이 장악한 신군부에 맞서 최후의 항쟁을 다짐하고 있었다. 전남 서울에서 고향 순천으로 내려와 광주에서의 학살 소식을 듣고 무작정 금남로로 향한 20대 청년 인요한이 항쟁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이다. 계엄군의 검문에 걸리던 미국 대사관 직원을 사칭하고 시민군을 만나면 동행했던 친구의 학생증을 내밀며 7차례의 검문을 통과했다.

도청에서 시민군 지도부를 취재하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기자 여덟 명이 재



인요한 소장은 지난 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광주일보와 만나 “80년 5월 광주에는 빨강이도 북한군도 아닌 선량한 시민들만 존재했다”며 5·18을 끊임없이 외곽하는 세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빨리 다가와 통역을 부탁했다. 하나같이 오랜 취재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외신기자들은 단박에 인요한이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함을 직감했다.

“우리는 빨강이도, 폭도도 아니다. 북으로 향해야 할 우리 국민의 총부리가 왜 광주 시민들에게 향했나. 왜 시민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야 했나”, “우리가 총기를 든 것은 국민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계엄군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다.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겠다.”

각종 지도가 걸린 도청 사무실에서 시민군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토해낸 말을 인요한이 영어로 통역할 때마다 외신기자들은 일제히 수첩에 내용을 기록하고 물기를 반복했다. “광주의 청년들은 총기를 들고, 부녀자들은 밥을 지어 나르며 계엄군에 맞서고 있다. 오죽 억울했으면 부녀자들이 연탄집게를 들고 금남로로 나섰겠는가.”

3시간 남짓 통역이 이뤄지는 동안 시민군 대표의 당시 광주지역 사상자 현황, 도청 내 시민군들의 무기, 식량 비축 현황, 통신·전기 확보 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외신기자에게 밝혔다. 청년 인요한을 통해 국내 언론과 정부 측이 주장한 ‘폭도

들에 의해 무정부 상태로 전락한 광주’가 아닌 ‘엄청난 슬픔 속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채 최후를 준비하는 광주’의 모습이 외신을 통해 타진됐다.

36년 전 항쟁의 한복판에서 시민군과 외신기자들의 회견을 통역했던 대학생 인요한은 중년의 의사가 변했지만 여전히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학살의 책임자 격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선 거친 말을 쏟아내며 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항쟁이자 민주화운동이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학살극’이었다는 것이다. 시민군의 마지막 항쟁지이자 5·18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옛 전남도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단언하며 분노했다.

“광주에서 5·18과 5·18 정신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벌집으로 변한 학살의 현장(도청 건물)을 지키자고 되돌려 5·18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후세에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전달해야 한다.”

/글·사진 서울=김형호기자 khh@

## 5·18 36주년 기념식, 해외 10개국서도 개최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등 해외 10여개국 30여개 도시에서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8일을 전후로 해외 10여개 국 30여개 도시에서 제36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식이 현지 한인회와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은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8개 도시,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2개 도

시, 중국은 상해, 심양 등 5개 도시, 독일은 베를린 등 2개 도시, 캐나다는 토론토 등 2개 도시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브라질은 상파울로,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핀란드에서는 자카르타, 베트남은 호치민에서 5·18 기념행사가 치러진다.

5·18재단은 그동안 해외에서의 5·18 기념식이 현지 호남향우회 주도로 개최됐으

나 올해부터는 한인회 주최로 행사 주관 단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호남향우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것보다 전체 한민사회가 함께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5·18 기념재단 측 의견에 호남향우회와 한인사회가 공감한 것이다.

5·18재단은 해외에서 기념식을 준비하는 단체에 5·18 관련 영상과 님을 위한 행진곡 음원을 제공,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공인중개사에 수익원 등친 법무사 사무장 광주서 70대 흥기 피살

### 이자 수익 미끼 7명 돈 가로채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수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광주북부경찰은 법인을 설립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7명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우모(40)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 1월부터 공인중개사 지모(45)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654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 7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접근해 ‘법무사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대납해주면 매달 100만~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공인중개사들은 법무사에서 추진하는 법인이라는 말에 속아 3500만~1억70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우씨는 2년전부터 유희비와 생활비 등으로 채우다가 늘면서 최근 빚 독촉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70대 노인이 아파트 안방에 있는 대형 고무다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78)씨가 이날 오후 6시에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안방에 있는 고무다아에서 엎드려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옷과 이발 등에 덮여 있었으며, 어깨 등에는 3개의 흉기가 꽂혀 있었다. 또 고무다아 옆에서는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119구급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은 누군가가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중화장실 청결하게 광주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9일 전남대학교 후원에서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학생들에게 홍보물과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법원 “강진 성화대 폐쇄명령 정당”

강진 성화대의 폐쇄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화대학을 운영한 학교법인 세립학원 이사장 정모씨와 이사 구모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사관리 부작정의 규모, 등록금 의존도 등에 비춰 성화대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자력 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하형 장사’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성화대학은 2006년 감사에서 학사관리 부작정을, 2010년 감사에

서 기본재산처분 부작정과 2006년 감사처분 이행 부작정을 지적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를 장기간 반복했고, 2011년 9월 법원에서도 학사관리 부작정 등을 지적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시정의 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화대학은 지난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 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 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의 현장 조사한 결과 아예 진행하지도 않은 강의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화대학은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은 해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또 “성화대학에 관용은 없다”며 신씨를 구속. /김형호기자 khh@

## 담배·현금 뜯은 동네조폭 쇠고랑

○“광주 삼부지구 일원을 누비며 동료 고물수집상과 상인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철장 신모(58)씨는 지난 3월12일 낮 12시40분께 서구 치평동과 운천저수지 주변에서 폐지·강통 등 고물을 줍던 정모(49)씨를 협박한 뒤 8일간 강제로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삼부지구 편의점을 찾아가 담배와 현금 등 33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간 혐의.

○“사기 등 전과 21범의 신씨는 고물수집상에게 “남의 물건 훔친 걸 알고 있다. 신고하겠다”는 수법으로 협박했고, 편의점 등을 상대로 습격하게 찾아가 담배 한 갑, 현금 1만원씩을 뜯다가 검거된 이후 선처를 호소했으나, 경찰은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게 관용은 없다”며 신씨를 구속. /김형호기자 khh@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아파트]</b>					
2015타경 16406	1	북구 설죽로389번길70, 111동 2층 202호 [상각동, 그린타운] 59.82㎡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5타경 20009	1	광산구 월계동 756-5 점당금호타운 104동 2층 204호 92.390㎡	아파트	194,000,000	194,000,000
2015타경 23770	1	영광군 영광동 녹사리 23-1 1동 2층 203호 83.522㎡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5타경 24339	1	서구 상일로37, 102동 11층 1108호 [상촌동, 모아제일아파트] 84.90㎡	아파트	215,000,000	215,000,000
2016타경 24698	1	광산구 소촌동 97-1 소촌2차아파트 207동 2층 202호 59.90㎡	아파트	109,000,000	2016타경5038 [중7동 2층 202호 59.90㎡]
2016타경 60233	1	광산구 장덕동 1693 성덕마을대방노블랜드 3차아파트 304동 6층 604호 156.5054㎡	아파트	578,000,000	578,000,000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5타경 23510	1	동구 학동 92 300.8㎡ [현월일부주차장] 동소 92.52, 56㎡ 부속건물 29.42㎡ [반피상대] 17.52㎡, 41.32㎡ [월실] 17.19㎡ [월실] 22,518,250	대	192,119,120	192,119,120
2015타경 24469	1	광산구 용곡동 12번길 11-9 123.32㎡ 부속건물 35㎡ [현월48.6㎡] 화장실1㎡ [소계면적] 22,518,250	대	22,518,250	22,518,250
2016타경 1432	1	나주시 대호동 707 867㎡ 나주시 정월사길 35 354㎡ 부속건물 근린시설 35㎡ [현월48.6㎡] 화장실1㎡ [소계면적] 34,738,800	대	34,738,800	34,738,800
<b>[연립주택/다세대/빌라]</b>					
2016타경 1081	1	동구 의재로96번길24, 4층 404호 80.3219㎡	다세대	227,000,000	227,000,000
<b>[대지/임야/전답]</b>					
2015타경 14318	1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산64 5793㎡ [현월영농조합법인지분1/6전부] 동소 산64-9 16268㎡ [목축1과지분동일] 동소 산64-12 11453㎡ [목축1과지분동일] 동소 산64-14 5333㎡ [목축1과지분동일] 동소 산64-15 2589㎡ [목축1과지분동일]	임야	114,096,150	114,096,15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4318	2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04-120 268㎡ [기계기구매각제외 [소재불명]]	전	23,584,000	도시계획시설도로지
2015타경 16765	1	곡성군 옥사동면 공목리 산44 3967㎡	임야	6,347,200	6,347,200
2015타경 23244	1	광산구 삼가동 산66-9 114034㎡	임야	4,903,462,000	매각제외제외건물임대, 분묘소재
2015타경 24070	1	곡성군 옥사동면 병계리 33 1279㎡ [농지취득자격필요]	답	9,720,400	매각대상아닌대산소유수속소재
2015타경 64221	1	광산구 옥산동 1063-4 3100㎡ [조관현지분1/4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31,000,0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필요
2015타경 64382	1	나주시 불향동 용곡리505-5 1110㎡ [고문포지분1/2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7,215,0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필요
2016타경 187	1	영광군 영광동 남천리 166-3 278㎡	대	36,974,000	수속포함, 매각제외제외건물임대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1타경 4375	1	북구 삼각동 824-2 3913.6㎡ 제1외 조경수 및 조경식 [제외외조경수 및 조경식포함] 동소 824-2 지1 3213.30㎡ 지2 3234.40㎡ 537.20㎡ 1층2505.20㎡ 2층2586.70㎡ 3-6층각2584.20㎡ [물건번호1: 정성희외17인으로부터유치권신고있음 [물건번호제외]]	대	17,092,308,000	17,092,308,000
2015타경 8481	1	광산구 장덕동 83-8 2429㎡	대	3,253,620,000	3,253,620,000
<b>[자동차, 중기]</b>					
2015타경 20726	1	사용본거지: 서구 하남대로 494 [동천동] 등 등록번호: 54허1710 차량: 소나타 연식: 2015	자동차	15,000,000	15,000,000
2015타경 63334	1	사용본거지: 무안군 동탄면 양장길 255 동 등록번호: 05디1039 차량: 그랜저 연식: 2006	자동차	5,000,000	5,000,000
2016타경 2275	1	사용본거지: 서구 화정로279번길19 301호 [농성동] 등록번호: 07조5901 차량: BMW 750L i 연식: 2005	자동차	13,000,000	13,000,000
<b>[기타]</b>					
2015타경 16765	2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230 가동 522㎡ 동소 230 라동 522㎡ 동물관련시설 동소 230 라동 522㎡ 동물관련시설 동소 230 라동 399㎡ 동물관련시설	기타	64,755,000	64,755,000

● 공인 부동산사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가격인 매각결정가격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 변경으로 인한 완성배우가 필요한 경우 매수 이의 발생가능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합판 제402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납입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5. 25. (수) 10:00  
3. 매각결정일자 : 2016. 6. 1.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추어 가일일방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권을 부여하여 받는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거래가격의 1%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현금보통계좌를 채운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주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가격과 각자 우선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참가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즉시 반환한다.  
6. 매각자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자가 어부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자결정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결정일에 확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산입한다. 다만, 제매각기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자가 유효하며, 매각사 재매각에 실시하여 아니한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 납부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분권, 기입장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 및 지분권이나 기입장 등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을 납부한 후 등기부등본을 인출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국민연금계좌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인출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확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 납부후에도 불구하고, 제자, 소유자 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주지 아니하면 법원 인도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 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사기거래에 의한 매매의 지양과 관련하여 불합법한 면적 주된 특권점정신청을 하고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제정되어 있거나 매각이후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까지, 현충조서보고서 및 매각기일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합판(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받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위임장 등도 입찰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가격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분권 공고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하는 법원이, 최종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결정일에서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제자, 제자, 제자를 변경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도 반환됩니다.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의 열람 가능한 정보의 열람 가능 정보의 열람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상환되어 되고, 대법원공고상이나 순회법정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일과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일에서 열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0.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